

# 광주서 기말시험 답안 또 유출 의혹 제기

### 쓰레기통에서 정답 적혀있는 쪽지 발견...경찰 수사 나서 시교육청 “시험지·답안지 2중관리...사전 유출 가능성 無”

광주의 모 고교에서 기말시험 답안지 유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해 나간 가운데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쪽지'는 시험 당일 배포된 시험지의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말시험에 앞서 학교에서 시험지와 답안지 등 사전 유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쓰레기통에 버린 기말고사 '정답'이 적혀 있는 쪽지는 시험 당일 배포된 시험지의 모서리 부분으로 일반 메모지(포스트잇)보다 조금 작다고 밝혔다.

쪽지에는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시험문제의 '답'이 작은 크기로 표기돼 있었으며 시험이 끝난 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은 지난 11일 치러진 지구과학에서 100점, 한국사 93점을 획득했으며 12일 수학Ⅱ 100점, 13일 생명과학 I 86점을 받았다.

이 중 생명과학 문제 중 4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시험 당일 정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수정되기 전 답을 쪽지에 표기했으며 수정이 안됐을 경우 100점이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기말시험지 사전 유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오후 학부모 등으로부터 답안지 유출 의혹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돼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는 CCTV가 있는 공간의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2명 이상이 동시에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외부 유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또 “정답이 표기된 쪽지가 시험지

모서리 부분이어서 학생이 문제를 풀 뒤 OMR카드에 표기 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 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답안 유출 의혹이 같은 학교에서 또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유출에 가담한 행정실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노조 차원에서 시민·학생과 함께하는 가정 '사학비리 예방 감시단'을 발족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반하다” 제작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제업무를 알리고, 민간 방제세력과의 협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 소식지 “반하다”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당부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센터장 황화연)는 19일 관내 광영상설시장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 안전관리 홍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화재 예방 집중 강화기간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세부 초기 '화재 예방 집중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경찰,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20일 오전 2층 소통마루에서 2022년 제2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개최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동강면 생활안전협의회 초청 치안설명회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지난 21일 경찰서 4층 이화마루(대회의실)에서 나주시 동강면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육군 전직 지원담당자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지난 21일 광주, 전남 북 지역 육군 전직 지원담당자를 초대해 제대에군인의 전직지원 방안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최이슬기자

## 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에 예약 변경·취소 전화 ‘빚발’

들은 투명 유리벽을 통해서만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대면 면회 허용 방침으로 전환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앞서 지난 20일 방역 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자 광주 지역 요양병원·시설에는 면회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다.

광주 광산구 A요양병원은 방역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십여 건에 달하는 면회 관련 전화를 받고 있다. 대체로 예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취소할 문의하는 내용 등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면회 일정을 지난 주말로 앞당긴 일부 면회객들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평소 대비 1.5배 많은 면회량을 보였다”며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말 면회

### 대면 면회 다시 중단돼

가 어려웠던 면회객들을 중심으로 가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유리벽을 두고 하는 면회와 영상 통화’가 무엇이 다르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B요양병원에도 면회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면회객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이 지내는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시설 내 입장이 제한되자 일부는 면회 일정을 취소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바뀐 지침 탓에 입소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신규

입소 상담을 한 고객들 상당수가 대면 면회 제한 조치 관련 안내를 듣고선 입소를 주저했다. 신규 입소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전면 중단과 함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외에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3차 접종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한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승호기자



폭염에 축 늘어진 사자들  
폭염특보가 발효된 25일 대구 중구 달성공원 동물원의 사자들이 더위를 피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자고 있다.

## 연천 군남댐 인근서 북한주민 추정 여성 시신 발견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 인근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 1개가 부착돼 있던 것으로 미뤄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25분경 연천군 군남면 임진

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이 한 여성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나이대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으로, 부검 결과에 대한 1차 소견은 내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지난 5일과 2일에는 김포와 인천 강화군 교통도 인근 갯벌에서 어린이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 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된 것은 이 달만 4번째로 경찰은 북한에서 떠 내려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슬비기자

## ‘영암 물놀이체험장서 6세 빠져’...주말 전남 지역 수난사고 잇따라

전남지역에서 주말동안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34분께 무안군 영산강 산책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으며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가에 조성된 산책길을 지인과 걷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16분경 영암군의 한 물놀이 체험장에서 B(6)군이 물에 빠졌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위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놀이 체험장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53분경 순천시 한 계곡에서 C(55)씨가 숨져있는 것을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C씨는 실종 신고 상태였으며 소방이 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주말동안 비가 많이 내려 강 수위가 불어난 상태였다”며 “비가 내리는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강가 물놀이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